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문제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는 것과 같이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동으로서, 경험적 연구들에 의하면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40% 미만이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ndrews, Issakidis & Carter, 2001). 특히 동양인들은 심리적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 상담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Akutsu, Snowden & Organista, 1996). 이러한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 문제나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서비스를 찾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는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첫째, 외부적 환경 변인을 들 수 있다. 즉 상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야 하며, 상담 시설에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상담을 받기 위한 시간과 돈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Cepeda-Benito & Short, 1998). 둘째, 개인적 변인을 들 수 있다. 개인적 변인들에는 (a) 인종이나 성별, 사회적 지위, 종교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유성경, 유정이, 2000; 유성경, 이동혁, 2000; Kelly & Achter, 1995; Komiya, Good, & Sherrod, 2000; Tata & Leong, 1994)과, (b) 낙인,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사적인 문제에 대한 개방성,

감정에 대한 표현성, 심리적 불편감, 등의 심리적 변인들(김주미, 유성경, 2002; 신연희, 안현의, 2005; 유성경, 이동혁, 2000; Cepeda-Benito & Short, 1998; Kelly & Achter, 1995; Komiya et al., 2000; Vogel & Wester, 2003; Vogel, Wester, Wei, & Boysen, 2005)이 있다.

전문적 도움 추구하고 관련된 변인들 중 많은 연구들에서 다루어진 요인이 심리적 변인이며, 심리적 변인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낙인이다(Corrigan, 2004). 낙인은 사회적으로 수용 받지 못하는 특성들 때문에 결합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Corrigan(2004)에 따르면 낙인은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적 낙인은 다른 사람이 한 개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며, 자기 낙인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함으로써 자기 존중감이나 자기 가치감이 감소하는 것이다. Corrigan(2004)은 사회적 낙인은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 도움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게 하며, 이러한 도움을 회피하게 만들고, 치료효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덜 좋아하며 덜 우호적으로 볼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담을 받지 않거나 상담을 받아도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Corrigan은 수치심이 클수록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가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면서(Leaf, Bruce, & Tischler, 1986; Corrigan, 2004에서 재인용), 자기 낙인 역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및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상담을 받으면 자신에 대한 수치심과 열등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상담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최상진, 유승엽, 1992), 낙인이 상담에 대한 기대와 도움 추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Yoo(1997)의 연구에서 미국 대학생들은 한국 대학생들에 비해 상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문화적 변인은 수직적-수평적 차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문화에서는 관계에 있어서 평등이 중시되는 수평주의가, 한국 문화에서는 관계상의 권위와 지위가 중요시되는 수직주의가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상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성경과 이동혁(2000)의 연구에 의하면, 수직적 차원과 사회적 낙인 간의 상관관계가 수평적 차원과 사회적 낙인 간의 관계에 대한 상관관계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수직적 차원은 사회적 낙인이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수직적 차원이 높게 나타나는 우리나라는 수평적 차원이 높게 나타나는 미국보다 사회적 낙인에 대한 인식이 더 높고 이에 따라 상담에 대해서도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낙인이 매우 중요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담에 대한 낙인과 관련된 연구는 한국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유성경과 이동혁(2000)의 연구에서 사회적 낙인과 문화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하지만, 이 연구는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척도의 하위 요인들 중 ‘낙인’이라는 하위척도와 문화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및 의도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못했다. 따라서 낙인과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부재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낙인 및 자기 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및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이라는 전문적 도움을 받도록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낙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Bordieri와 Drehmer(1986)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해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Crisp, Gelder, Rix, Meltzer, & Rowlands, 2000; Vogel et al., 2005), 심리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부정적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심리적 장애라는 낙인을 숨기는 경향이 있었다(Corrigan & Matthews, 2003).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낙인에 대한 척도 개발이나 사회적 낙인에 대한 환자 가족의 태도와 같이 심리적 장애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며(김정남, 2003; 최이순, 1996), 사회적 낙인은 사회적 적응성, 가족지지, 자아존중감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소연, 2004).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심리적 장애뿐만 아니라 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Sibicky와 Dovidio(1986)에 의하면 상담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담을 받은 사람들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Vogel 등

(2005)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낙인과 더불어 치료에 대한 두려움, 자기 개방, 사회적 기준, 사회적 지지 등의 요인들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다시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낙인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낙인뿐만 아니라 자기 낙인으로까지 그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 자기 낙인에 대한 연구는 Vogel, Wade, 그리고 Haake(2006)가 도움추구와 관련된 자기낙인 척도(Self-Stigma of Seeking Help, SSOSH)를 처음 개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Vogel, Wade, 그리고 Hackler(2007)의 연구에서는 새롭게 개발된 자기낙인 척도를 사용하여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및 의도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은 사회적 낙인을 개인이 내면화함으로써 자기 낙인이 형성된다고 보았기에, 사회적 낙인이 자기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Vogel 등(2007)은 Vogel 등(2005)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Ajzen과 Fishbein(1980)의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을 기반으로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합리적 행동이론에서는 사람들의 행동은 일련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즉, 행동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선행 요인은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이고, 의도의 선행요인은 태도이며, 태도는 사람들의 결과 기대에 의해서 예측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을 사회적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과 연관시켜 보면,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예, 내가 전문적 도움을 추구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를 기대한다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태도

(예,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를 가지게 될 것이고, 부정적인 태도는 다시 부정적인 의도를 초래하여, 결국 전문적 도움을 회피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들이 가정한 모델은 사회적 낙인이 자기 낙인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 낙인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자료 분석 결과 이들이 가정한 모델대로 자기 낙인은 사회적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간을 매개하였으며,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자기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Vogel 등(2007)은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몇 가지 제한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연구 대상의 90%가 유럽계 미국인이었기에, 이 연구의 결과를 모든 인종, 모든 국가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이 연구의 결과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이 연구에서 사회적 낙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는 원래 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낙인을 살펴보는 도구이므로, 상담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측정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척도를 사용하여 상담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Vogel 등(2007)의 제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및 의도 간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날 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 및 심리치료를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요인들을 발견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유성경과 이동혁(2000)의 연구에서 수직주의가 높은 사람들이 수평주의가 높은 사람들보다 상담을 받음으로 인해 사람들로 부터 낙인찍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수직주의 경향이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사회적 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더 분명하고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Gellis, Huh, Lee, 그리고 Kim(2003)은 ‘정신 건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미국과 한국 학생들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 한국 학생들이 사회적 인 기준이나 기대에 부합되지 못하는 행동에 대해 미국 학생들보다 더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인식하였다. 정신 건강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규범이 한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는, 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낙인이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낙인뿐만 아니라 자기 낙인 역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직접적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은 한 변인이 나머지 한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 관계라기보다는, 사회적 낙인이 높아질수록 자기 낙인이 높아지고 자기 낙인이 높아질수록 사회

적 낙인도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1과 같이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Vogel 등(2007)이 사회적 낙인에 대한 측정 도구가 적합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전 연구에서 사용했던 척도와는 다른 척도를 사용하여 Vogel 등(2007)의 연구 결과를 재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Vogel 등(2007)이 사용했던 심리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척도인 Link, Cullen, Struening, Schrouf, 그리고 Dohrenwend(1989)의 지각된 평가 절하 및 차별 대우 척도(Perceived Devaluation-Discrimination scale) 대신,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낙인 척도(Stigma Scale for Receiving Psychological Help; Komiya, et al., 2000)를 사용하여, 상담(심리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사회적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둘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자기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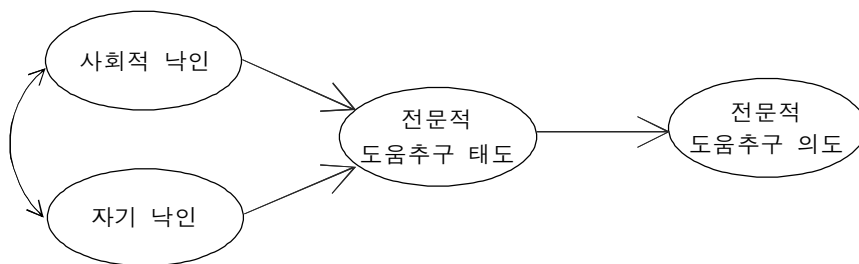


그림 1. 낙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모형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순서효과를 없애기 위해 A set(1-2-3-4)와 B set(4-3-2-1)가 사용되었다. 회수된 총 415부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하게 답한 설문지 21부를 제외한 후, 총 394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44.4%, 여자가 55.6%였으며, 상담이나 심리 검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44.7%, 상담이나 심리 검사 경험이 없는 사람이 55.3%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상담이나 심리 검사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Gurin, Veroff, & Feld, 1960), 또는 상담뿐만 아니라 심리 검사의 경험도 함께 포함을 시켰기 때문일 수도 있다.

도 구

사회적 낙인

사회적 낙인은 5문항의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낙인 척도(Stigma Scale for Receiving Psychological Help; Komiya et al., 2000)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기법으로는 역번안 기법을 사용하였다. 번안 절차는 먼저 원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한 뒤, 한국어로 번역된 척도를 이중 언어자가 역번안하였으며 역번안된 척도와 원척도를 원어민이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문항을 수정하였다. 이 척도는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이 있는 낙인의 개념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안되었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들의 합을 더해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낙인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았다. 문항의 예로는 “정서적 혹은 대인관계 문제를 위해 상담(심리치료)을 받는 것은 사회적 낙인을 가져온다.”는 것이 있다. 내적 합치도는 Komiya 등(2000)의 연구에서 .73으로 나타났고, 이 연구에서는 .78이었다. 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 분석을 한 결과 단일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모두 .6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요인이 전체 사회적 낙인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는 63.7%로 나타났다.

자기 낙인

자기 낙인은 도움추구에 대한 자기 낙인 척도(Self-Stigma of Seeking Help Scale; Vogel et al., 2006)를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심리적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자(심리치료사)를 찾아간다면 나 자신에 대해 불충분함을 느낄 것이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10개의 문항이다. 참여자들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아주 그렇다)까지 평정하였다.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낙인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Vogel 등(2006)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86,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2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 4번과 5번의 경우, 문항 제거 시 신뢰도가 매우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또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 분석을 한 결과 역시 4번, 5번 문항이 요인부하량도 낮게 나타나, 본 연구의 자료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두 문항을 제거하였다. 4번, 5번 문항을 제외한 후 다시 분석을 한 결과, 내적 합치도는 .83으로 나타났으며, 단일 요인이 전체 자기낙인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는 66.99%로 나타났다.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Fischer와 Turner(1970)가 개발하였으며 신연희와 안현의(2005)가 번안한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 척도(Attitude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TSPPH)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예: 정서적 문제를 가진 사람은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전문적 도움을 받아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해 자신의 도움추구 태도를 잘 나타내는 정도를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심리 전문가나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29개 문항,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척도는 도움 필요성 인식, 낙인에 대한 내인성, 자기 문제에 대한 개방성, 전문가에 대한 신뢰이다. 낙인에 대한 내인성을 나타내는 5문항은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 척도와 개념이 중복되어 삭제하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11번과 25번의 경우 낮은 요인 부하량을 보이고 있어 제거하였다. 그 후 다시 2차 요인분석을 한 결과, 요인부하량은 구성된 요인에서 .4이상으로 나타났던 것이 확보되었으며, 총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3개의 요인이 전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68.3%로 나타났다. 요인1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중 '전문가 신뢰'와 관련된 문항이었으며, 요인2는 '도움필요성 인식', 그리고 요인3 '개방성'과 관련된 문항들로 나타났다. Fischer와 Turner(1970)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6이었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세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78, .82, .72로 나타났다.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는 Cash, Begley, McCown 그리고 Weise(1975)에 의해서 개발되었고 신연희와 안현의(2005)가 번안한 상담 의도 목록(Intentions to Seek Counseling Inventory)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질문지는 총 1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자들이 열거된 문제들을 경험했을 때 어느 정도 상담을 받고 싶을지를 6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Vogel과 Wester(2003)가 4점 Likert로 수정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1점(절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 평정하였다. 하위 척도는 대인관계 문제(11문제), 학업문제(4문제), 약물/알콜 문제(2문제)로 나눌 수 있으며, 각 하위척도의 반응을 합해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 문제에서 상담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인 분석 결과 17번 문항이 요인부하량이 낮았으며 두 개 요인에 유사한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제거하였다. 그 후 다시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하위 요인(심리적·대인관계문제, 학업문제, 약물복용)으로 나뉘어졌으며,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4 이상으로 나타났고, 세 개의 하위 요인이 전체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는 54.99%로 나타났다. Cepeda-Benito와 Shortt(1998)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합치도는 대인관계 문제 .90, 학업문제 .71, 알콜/약물사용 문제 .86이었고, 이 연구에서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대인관계 문제 .84, 학업문제 .81, 알콜/약물사용 문제 .63이었다. 우리나라는 다른 문화에 비해 과도한 음주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한태선, 2000). 따라서 ‘알콜/약물사용 문제’ 하위 요인은 ‘만약 과도한 음주라는 문제를 겪고 있다면 상담(심리치료)을 받으러 올 것’이라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상황에 적합하지 못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뢰도가 다소 낮게 나온 것으로 추론된다.

분석 방법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SPSS 12.0을 사용하여 각 측정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 모형에서 제시한 변인들 간의 관계 및 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AMOS 5.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했다.

결 과

예비 분석 결과

가설적 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서 각 척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등 기초통계치를 구하였으며,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변인들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간의 관계

측정 모형 검증

측정 변수가 잠재변수를 반영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에서는 측정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관계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측정변수가 잠재 변수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형의 적합도 역시 사회적 낙인에서는 NFI=.99, GFI=.99, RMR=.01, 자기 낙인에서는 NFI=.97, GFI=.98, RMR=.02로 나타나 타당한 모형임을 보여주었다.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에서는 포화모형이기 때문에 적합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 1. 기술 통계 분석 및 상관분석 결과 (N =215)

변 인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낙인	1				2.21	0.51
자기 낙인	.52**	1			2.30	0.58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46**	-.53**	1		2.69	0.37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06	-.05	.29**	1	2.40	0.54

**p < .01

관계가 나타나 역시 타당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구조 모형 검증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그리고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가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모형은 그림 2와 같이 사회적 낙인 및 자기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간의 관계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가 완전 매개한다는 완전 매개 모형을 설정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사회

표 2.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모수 추정치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임계치
사회적 낙인				
사회1	.65***	1.00		
사회2	.72***	1.01	.11	10.12
사회3	.68***	1.57	.17	9.30
사회4	.66***	1.42	.16	9.07
사회5	.52***	1.22	.15	8.38
자기 낙인				
자기1	.61***	1.00		
자기2	.57***	.95	.10	9.26
자기3	.63***	.86	.09	9.44
자기4	.76***	1.17	.11	10.74
자기5	.66***	1.01	.10	9.86
자기6	.73***	1.18	.11	10.62
자기7	.61***	1.04	.11	9.93
자기8	.50***	1.00	.13	8.01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태도1	.49***	1.00		
태도2	.65***	.89	.16	5.48
태도3	.59***	1.81	.27	6.62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의도1	.84***	1.00		
의도2	.69***	.75	.08	9.11
의도3	.46***	.65	.08	8.28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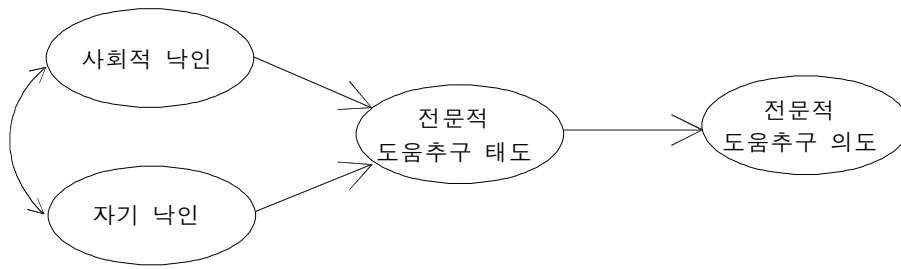


그림 2. 연구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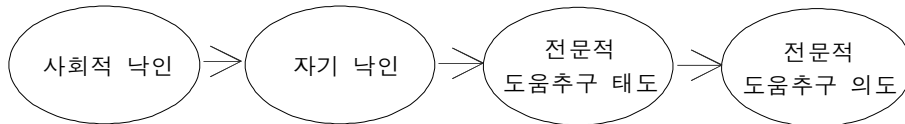


그림 3. 경쟁 모형

적 낙인 및 자기낙인은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서 부분 매개 모형을 검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분 매개 모형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경쟁모형은 그림3과 같이 Vogel 등(2007)이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의 모형, 즉 사회적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간의 관계를 자기 낙인이 완전 매개하고, 자기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간의 관계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가 완전 매개하는 모형을 경쟁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분석

연구 모형과 경쟁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연구 모형과 경쟁 모형의 적합도 지수

를 살펴보면, 연구 모형이 경쟁 모형보다 GFI (Goodness-of-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of-Fit Index), TLI(Tucker & 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의 적합도에서 모두 더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어 연구 모형이 보다 타당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각 적합도 지수의 대략적인 기준은 GFI, AGFI, TLI, CF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홍세희, 2001) 또한, 유의도 수준 $\alpha=.05$ 수준에서 연구 모형과 경쟁 모형이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자유도 1차이가 3.84 이상의 χ^2 차이를 가져와야 하는데 두 모형 간에는 9.45만큼의 χ^2 차이가 있으므로 영가설

표 3. 연구 모형과 경쟁 모형 간 모델 적합도 비교

	χ^2	df	GFI	AGFI	TLI	CFI	RMSEA
연구 모형	405.29	148	.93	.92	.92	.92	.04
경쟁 모형	414.74	149	.90	.87	.87	.86	.07

이 기각된다. 따라서 연구 모형과 경쟁 모형은 자료를 설명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연구 모형이 경쟁 모형보다 본 자료를 더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모수 추정치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제시하면 표 4, 그림 4와 같다.

구조 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모든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자기 낙인에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사회적 낙인에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간의 경로는 모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전문적

표 4. 연구 모형의 모수 추정치

모 수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임계치
사회적 낙인 ⇒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33***	-.17	.05	-3.30
자기 낙인 ⇒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50***	-.19	.04	-4.65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27***	.71	.19	3.74
사회적 낙인 ⇔ 자기 낙인	.68***	.15	.02	7.3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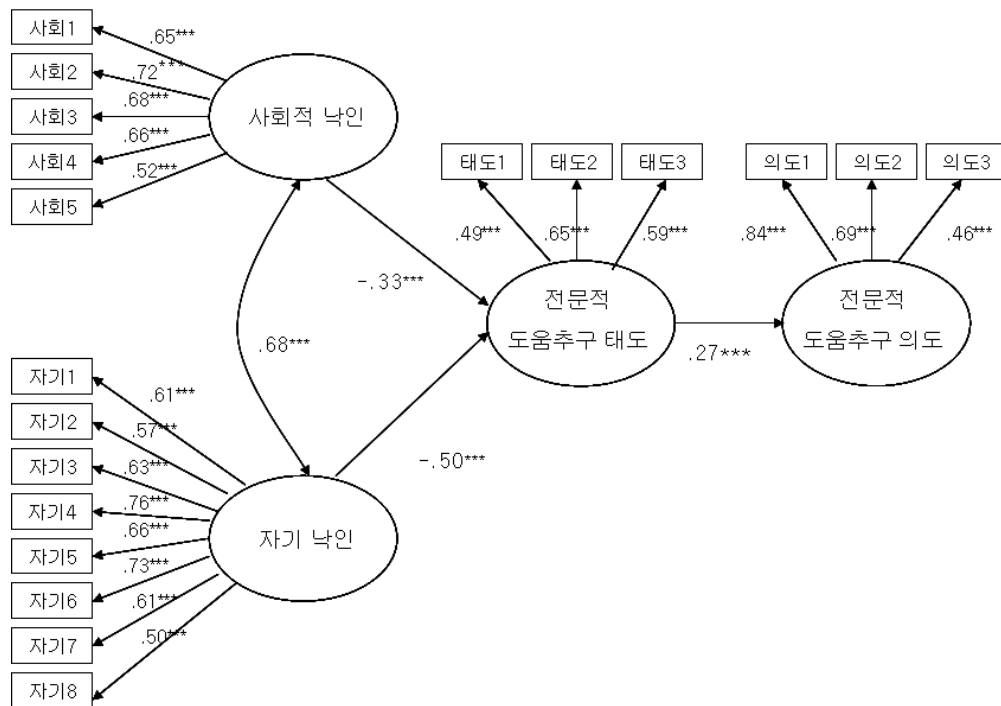


그림 4. 연구 모형 모수 추정치

도움추구 의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은 서로 간에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 효과

매개 효과는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 가는 경로(a)와 매개변인에서 종속 변인으로 가는 경로(b)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을 때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간의 관계(a)가 유의미하였고,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간의 관계(b)가 유의미하였으므로,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간의 관계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가 매개하는지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매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Sobel test(1982)를 시행하였다. Sobel test 결과, 사회적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간을 매개하는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매개 효과는 $Z_{ab}=4.74$ 로 나타나 임계치 1.96보다 크기 때문에 영가설이 기각되어 유의미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간을 매개하는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매개 효과는 $Z_{ab}=5.63$ 으로 나타나 임계치 1.96보다 크기 때문에 영가설이 기각되어 유의미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사회적 낙

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자기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Vogel 등(2007)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동일하게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이 모두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문화적 특징을 나타내는 수직주의 대 수평주의와 상담에 대한 태도, 낙인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유성경, 이동혁, 2000; Yoo, 1997)나 심리적 장애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김정남, 2003; 유소연, 2004; 최이순, 1996), 상담과 같은 전문적 도움을 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자기 낙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사회적 낙인뿐만 아니라 자기 낙인 역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회적 낙인(상담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덜 좋아할 것이다)과 자기 낙인(상담을 받으면 나 자신에 대해 열등감을 느낄 것이다)을 더 많이 지각할수록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상담을 받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를 가지게 되고 결국 전문적 도움추구를 회피하는 결정(나는 문제가 있더라도 상담을 받으려 가지 않을 것이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미국에서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Ajzen과 Fishbein(1980)의 합리적 행동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을 지지하고 있다. 합리적 행동 이론에서는 결과기대

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의도가 달라지고, 의도는 행동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이라는 상담에 대한 결과기대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태도는 다시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Vogel 등(2007)의 연구에서 제한점으로 제시되었던 점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먼저 Vogel 등(2007)이 사용했던 심리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낙인 척도인 ‘지각된 평가 절하 및 차별 대우 척도’가 아니라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 척도’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 Vogel 등(2007)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이 모두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장애뿐만 아니라 상담이나 심리치료에 대한 낙인도 도움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심리적 장애에서 보여주는 아주 심각한 문제행동뿐만 아니라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지각되거나 자신에게 열등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상담 및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 도움을 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Vogel 등(2007)이 제안한 바와 같이 미국과는 다른 문화적 맥락인 우리나라에서는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앞에서 언급했던 가설대로 미국과 한국 간에 문화적 차이를 나타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낙인이 사회적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매개하는 Vogel

등(2007)의 모형보다,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이 직접적으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직접적이라는 것의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 건강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미국 대학생들보다 한국 대학생들이 사회적인 인식과 규범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된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며(Gellis et al., 2003), 수직주의 경향이 더 높은 우리나라에서 전문적 도움을 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유성경, 이동혁, 2000)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하여 자기 낙인(‘상담을 받으면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인식)으로 받아들인 경우에만 전문적 도움을 회피하게 되지만, 한국에서는 사회적 낙인만으로도, 즉 상담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지 않게 생각할 것이라는 인식만으로도 전문적 도움을 회피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사회적 낙인이 자기 낙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Vogel 등(2007)의 연구와는 달리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한 경우에만 자기 낙인을 보이는 미국과는 달리, 사회적 낙인이 자기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회적 낙인에 대한 내면화 없이도 자기 낙인을 가지게 되며 자기 낙인은 사회적 낙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사적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더 억제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Hsu, 1985; Leong, 1992)

에서 그 원인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자기개방을 억제하는 문화에서 자신의 문제를 상담자에게 이야기하면 자기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 낙인에 대한 인식 없이도 자기 자신에 대해 수치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되며, 이렇게 형성된 자기 낙인은 사회적 낙인을 더 많이 인식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Vogel 등(2007)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측정도구와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사회적 낙인을 측정하는 것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기 낙인과 사회적 낙인 간의 관계에 대한 문화 차이는 추후연구에서 더 자세히 탐색해 보아야 할 부분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과 관련된 주요 변인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상담에 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망설이지 않고 상담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상담과 같은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사회적 낙인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상담자는 먼저 상담을 찾아온 사람들이나 앞으로 상담에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내담자들에게 자기 낙인을 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가 감소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러한 정보는 사람들이 자기 개방에 대해 더 편안하게 느끼고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증가시키도록 도울 것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대중 매체와 캠페인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것이 사회적인 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있다(Foxhall, 2000; 유성경, 이동혁, 2000에서 재인용).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낙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에서 미국과 한국 간에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추후 연구에서는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과 관련된 다른 심리적 변인들(예: 사적인 문제에 대한 개방성, 감정에 대한 표현성, 심리적 불편감)에는 어떤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문화는 서구 문화보다 자기개방과 감정에 대한 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Hsu, 1985; Leong, 1992), 이러한 심리적 특성이 도움추구 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서구 문화와 다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과 같은 서구 사회에서 이루어진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형이 어떤 것인지를 탐색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담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상담 심리학의 발전

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된다. 둘째, 이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에 속하는 6개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결과가 표본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집단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연구 대상으로 고르게 표집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변수들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하지만 종단연구나 실험적 방법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 명백한 인과관계를 밝혀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이 연구에서 측정된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는 실제 도움추구를 결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이다. 그러나 자기보고식 질문지에서 도움추구 의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실제 상담 장면에서 측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남 (2003). 정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3), 595-617.

김주미, 유성경 (2002).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문화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91-1002.

신연희, 안현의 (2005).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서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

치료, 17(1), 177-195.

유성경, 유정이 (2000).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과 상담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9-32.

유성경, 이동혁 (2000). 한국인의 상담에 대한 태도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55-68.

유소연 (2004). 정신질환자가 지각하는 낙인 정도에 관한 연구. *간호과학*, 16(2), 20-31.

최상진, 유승엽 (1992).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6(2), 137-157.

최이순 (1996).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낙인에 대한 환자 가족들의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5(1), 69-89.

한태선 (2000). 적정음주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6(4), 383-392.

홍세희 (2001). 임상심리학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 연구방법론: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평균모형의 분석.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임상심리학회 3월 workshop 자료집*.

Akutsu, P. D., Snowden, L. R., & Organista, K. (1996). Referrals pattern in ethnic-specific and mainstream programs for ethnic minorities and whi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1), 56-64.

Andrews, G., Issakidis, C., & Carter, G. (2001). Shortfall in mental health service utilizat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9(5), 417-425.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ordieri, J. E., & Drehmer, D. E. (1986). Hiring decisions for disable workers: Looking at the caus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6*(3), 197-208.
- Cash, T. F., Begley, P. J., McCown, D. A., & Weise, B. C. (1975). When counselors are heard but not seen: Initial impact of physical attract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2*(4), 273-279.
- Cepeda-Benito, A. & Short, P. (1998). Self-concealment, avoidance of psychological services, and perceived likelihood of seeking profession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4), 58-64.
- Crisp, A. H., Gelder, M. G., Rix, S., Meltzer, H. L., & Rowlands, O. J. (2000). Stigmatization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7*, 4-7.
- Corrigan, P. W. (2004). How stigma interferes with mental health care. *American Psychologist, 59*(7), 614-625.
- Corrigan, P. W., & Matthews, A. K. (2003). Stigma and disclosure: Implications for coming out of the closet. *Journal of Mental Health, 12*(3), 235-248.
- Fischer, E. H., & Turner, J. L. (1970). Orientations to seeking professional help: Development and research utility of an attitude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5*(1), 79-90.
- Foxhall, K. (2000, July/August). APA is key to anti-stigma campaign. *APA Monitor*, pp.48-49.
- Gellis, Z. D., Huh, N. S., Lee, S., & Kim, J. (2003). Mental health attitudes among Caucasian-American and Korean Counseling Student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9*(3), 213-224.
- Hsu, F. L. K. (1985). The self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In A. J. Marsella, G. DeVos, & F. L. K. Hsu (Eds.). *Culture and self*. London: Tavistock.
- Kelly, A. E., & Achter, J. A. (1995). Self-concealment and attitudes toward counseling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1), 40-46.
- Komiya, N., Good, G. E., & Sherrod, N. B. (2000). Emotional openness as a predictor of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seeking psychologic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138-143.
- Leaf, P. J., Bruce, M. L., & Tischler, G. L. (1986). The differential effect of attitudes on the use of mental health services. *Social Psychiatry, 21*(4), 187-192.
- Leong, F. T. (1992). Guidelines for minimizing premature termination among Asian American clients in group counseling. *Journal for Specialists in Group Work, 17*(4), 218-228.
- Link, B., Cullen, F., Struening, E., Schrot, P., & Dohrenwend, B. (1989). A modified labeling theory approach to mental disorders: An empirical assess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3), 400-423.
- Sibicky, M., & Dovidio, J. F. (1986). Stigma of psychological therapy: Stereotypes, interpersonal reactions, and the self-fulfilling prophec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2), 148-154.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Tata, S. R., & Leong, F. T. (1994). Individualism-collectivism, social-network orientation, and acculturation as predictions of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mong Chinese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3), 280-287.
- Vogel, D. L., Wade, N. G., & Haake, S. (2006). Measuring the self-stigma associated with seeking psychologic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3), 325-337.
- Vogel, D. L., Wade, N. G., & Hackler, A. H. (2007). Perceived public stigma and the willingness to seek counseling: the mediating roles of self-stigma and attitudes toward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1), 40-50.
- Vogel, D. L., Wester, S. R. (2003). To seek help or not to seek help: The risk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3), 351-361.
- Vogel, D. L., Wester, S. R., Wei, M., & Boysen, G. A. (2005). The role of outcome expectations and attitudes on decisions to seek profession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459-470.
- Yoo, S. K. (1997). *Individualism-collectivism, attribution styles of mental illness, depression symptomatology, and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ns and America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USA.

원고접수일 : 2007. 3. 27

수정원고접수일 : 2007. 7. 15

게재결정일 : 2007. 8. 2

Perceived Stigma and the Intention of Seeking Professional Help: Mediating Roles of the Attitude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Min-ji Lee

Eun Jung So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 among social stigma, self-stigma, attitude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and intention to seek professional help. First, attitude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was hypothesized to mediate between social stigma and intention to seek professional help. The second hypothesis was that attitude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would mediate between self-stigma and intention to seek professional help. The participants were 394 university students. For the data analyses,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were calculated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s were test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attitude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mediated between social stigma and intention to seek professional help; attitude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also mediated between self-stigma and intention to seek professional help.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erceptions of social and self stigma eventually caused avoidance of professional help. Thes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re was a cultural difference between U.S. and South Korea in the model of relations among stigma, attitude toward professional help, and intention to seek professional help.

Key words : Public stigma, self-stigma,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intention to seek professional help